

돈줄 틀어막은 은행... 연말 자금전쟁

“힘들어요. 연말에 돈을 필요한데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을 규제하는데 다 기존 융자금의 이자까지 크게 올라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광주시 하남산업단지내 A 기계제조업체 대표는 “부품 개발자금이 1억여원이 소요되는데 대출길이 막혀 고민”이라며 “부품 개발자금은 커녕 당장 직원들 월급까지도 파악한 형편”이라고 걱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권 기업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연말 법인결산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마다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돈 가뭄’이 심각한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단기현금 차입을 위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광주·전남 중소기업 자금확보 비상...은행권도 '돈가뭄'

내수 부진→소비위축→지역경제 침체 악순환 우려

인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연말결산을 앞두고 부족한 자본금 총량과 유동비율·부채비율 개선 등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단기현금 차입이 최대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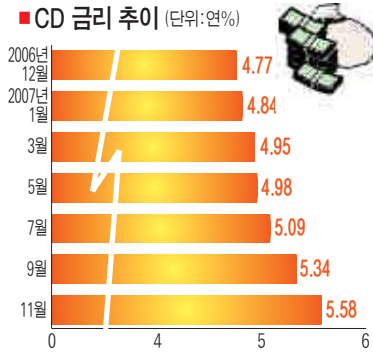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일부 업체는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10~20%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13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8%가 사채조달을 계획중이었고, 5.7%는 이에 금융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은 시중자금이 편드나

증시로 불리는 바람에 은행권의 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은행권은 최근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부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선 일정부분을 회수한 후에야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춘공단지내 B업체 대표는 “추가 설비투자가 시급한데 최근 대출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했다”면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 직원 구조조정 등 감량경영에 나선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CD(양도성에급증서)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덩달아 치솟으면서 지역 건설·주택업계가 가장경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입소외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도 같이 타고 싶지만, 고정금리도 최고 9%를 넘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고 감량경영에 나설 경우 내수부진→소비위축→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태기자 jilee@kwangju.co.kr



카드로 새해 운수 보세요...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패션스트리트 콩코스 광장에서 카드를 이용해 내년 운세를 알아보는 타로점 이벤트를 진행, 고객들로부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올 아파트값 '주춤'

연립·단독과 격차 줄어 수도권 등 전국은 역전

올들어 전국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연립·단독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도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동안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던 아파트가격 강세가 한풀 꺾였다.

2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평균 2.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7.7%, 2.6% 올라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단독·연립보다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로 아파트값이 급락했던 1998년 이후 9년 만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연립·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5.1%)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하지만 올들어선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의 집값 오름세가 역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단독·연립주택의 집값은 각각 6.6%, 8.1% 상승하면서 아파트(3.4%)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격 상승률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광주는 올해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이 -0.1%로, 아파트값 상승률(-0.1%)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광주 전체 집값이 3.0% 오른 가운데 아파트값은 3.5%나 뛰는 것에 비해 집값 상승률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남도 지난해 아파트와 전체 집값 상승률이 각각 3.0%, 1.0%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각각 1.8%, 1.1%로, 상승폭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光銀-광주시 협약 중소대출지원 확대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와 '산업융자 분양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가 추천한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자 가운데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자로, 토지분양금액의 80% 이내를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은 3년 이내(기한연장 가능)이며, 분할상환은 10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연동금리(MBR)+0.8% 이상으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방산업단지 분양활성화와 지역기업 양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신용따라 주택대출 금리 차등

최대 0.17%P...저신용자 옆친데 덮친격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신용관리에 신경을 써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비용을 환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운용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의 모든 자산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바젤Ⅱ(신BIS협약)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게 금리 운용방식을 바꾼 것이다.

변경안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

지게 된다. 1등급의 경우는 현행금리(24일 기준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 2~3등급은 0.03%포인트, 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가며 5등급은 현행 금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반면 6등급의 경우 0.05%포인트, 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돼 각각 연 6.49~8.09%, 6.57~8.17%로 인상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가계대출 10조5천억원

10월 동향...연중 최고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와 은행들의 대출영업 확대 등으로 인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광주·전남 예금은행

의 가계대출잔액은 10조5천286억원에 달한다. 이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12월(9조8천692억원)에 비해 6천594억원(6.7%) 증가한 것으로, 올해 주택관련 대출 증가와 은행의 영업강화 노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추석연휴 카드대출 결제 등 개인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는 가계대출 잔액이 6조4천302억원으로, 전월인 9월(6조2천732억원)보다 1천570억원(2.5%) 늘었다. 전남도 가계대출이 4조594억원으로, 전월(4조481억원)보다 503억원(1.2%) 증가했다.

광주·전남은 또 주택관련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주택관련 대출잔액은 5조2천4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5조1천562억원)에 비해 860억원(1.7%)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액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건보공단 895명 채용 사회복지사 등...인터넷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 경력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 측은 전국 16개 지역에 걸쳐 간호사 669명, 사회복지사 1급 213명, 물리치료사 6명, 치과위생사 7명 등 총 895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채용 인원은 건보공단 설립 후 최대 규모이다. 원서 접수는 12월 27~2008년 1월 4일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공단 측은 학력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사회봉사활동 우수자, 효행·선행자 및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역 출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비자 만족도 높은 주택업체 분양가에 가산비 1% 더 인정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내년 7월부터 가산비를 추가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2월에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월에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4~5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우수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업체는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더해 분양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할 때 1㎡당 가산되는 금액은 1만780원으로 1천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9억1천630만원을 더 받게 된다.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는 평가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업체가 지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직접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사용검사가 끝난 지 6~18개월인 공동주택이며 다만 내년 상반기 평가 때는 2006년 10월부터 3월사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